

‘평상심시도’로 인욕 수행

회 졸업생인 청담 대종사의 탄신 100주기를 맞아 설립된 진주산림대 청담사상연구소 장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광 스님은 그동안 청담장학문화재단을 통해 학술세미나와 연구자 발간, 장학사업 등을 후원해 왔다. 청담대종사상사비를 진주산림대 교정에 세우는 등 스승의 유지를 선양하기 위한 다양한 불사를 주도하거나 후원해 온 동광 스님은 문도회와 신도들의 힘을 모아 진주에 (가칭)청담스님기념관 설립을 발원하고 있다. 지역민 누구나 와서 공연과 법회, 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불교센터로 만든다는 계획이 있다.



40년 전, 동광 스님이 출가할 당시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지만 국민들의 불심은 오늘 날보다 깊었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진 요즘, 사람들은 더욱 불어 이해 하며 고통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사상적,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분열되어 고통받는 근본 이유는 우리 국민의 공업(供業)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스님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늘 지방 어디를 가시든 하루도 빼놓지 않고 회중시계의 나침반으로 도선사 석불전을 향해 몸소 108배를 하셨지요.”

좌선할 때 우뚝한 모양으로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다 해서 ‘율연(兀然) 수좌’란 별명을 얻은 청담 스님은 당시 민주에 주석하던 경허 스님의 수제자 수월 스님을 친견해 지도·접점을 받은 열혈 수좌였다. 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결사를 주도하는 등 치열한 구도과정을 거쳐 1934년 수덕사 만공 선사와의 선문답으로 깨침을 인가받은 선사이기도 하다. 그런 분이 입적하는 순간까지 108참회를 한 것은 개인의 공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업장소멸과 행복을 기원한 보살행이었다는 것이 동광 스님의 견해다.

좌선과 염불과 같은 수행과 함께 삶속에서 보살행을 펼쳐며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복해쌍수(福慧雙修)의 중요성을 스승으로부터 배운 동광 스님은 신도들에게 수시로 복짓는(作福) 일을 강조한다.

“의상 스님의 법성제(法性制)에 ‘부처님께서 해인삼매 가운데서(能仁海印三昧中) 뜻대로 부사의 합을 나타내고(繁出如意不思議)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하니(雨寶盆生滿虛空)

중생들은 그릇이라 이익을 얻네(衆生隨器得利益)’라는 글이 나옵니다. 여래의 자비는 평등해서 차별이 없는데, 중생이 받아들이는 그 과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중생심으로 부처님의 평등한 복전(福田)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맑은 하나인데 씨앗이 무엇이나에 따라 저마다 다른 싹을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탐진치를 버리고 오직 부처님께 귀의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어 합니다.”

동광 스님은 복을 짓고 받는 것을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비유해 거듭 설명했다. “에너지는 일정하며 단지 그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물리법칙이 있듯이, 복을 받기만 하고 짓지 않으면 업이 되고 맙니다. 늘 물질적, 정신적으로 욕심을 비우고 살면 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법정 스님의 무소유(無所有) 정신은 필요 없는 탐진치를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행(言行) 그대로가 법문이었던 스승의 유훈 그대로 일하고 포교하는 과정에서 시비분별을 초월한 평상심(平常心)을 실현하기 노력한 동광 스님은 1984년 전후, 죽음의 문턱을 넘나 들며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젊을 때 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수행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느 날 아침 예불을 마친 후 코와 입으로 혈담이 쏟아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죽는가 보다 했는데, 1주일 후 퇴

원한 뒤 6개월만에 ‘음성’ 판정이 나와 부처님 가피력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기간을 정해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소인을 보면서 새벽예불을 빠뜨리지 않고, 아침에 경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살아온 공덕이 아닌가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생사를 몸으로 겪은 후 삶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고, 생사가 본래 없는 성품자리에 대한 믿음도 더욱 깊어졌다. 이미 고등학생 시절 <금강경>을 100독 하고, 3주 승찬 대사의 <신심명>과 보조 국사의 어록을 볼 정도로 선(禪)과 깊은 인연을 맺은 동광 스님은 요즘도 <임제록>과 <금강경오가해>를 수시로 독송하며 생활속의 마음공부를 놓지 않고 있다.

“은사스님은 좌선만을 강조하지 않고 일거수 일투족이 모범이 되는 동중선(動中禪)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에 앉아서 보면 ‘골짜기 물이 대숲을 지나니 물이 푸르고, 바람이 꽃을 스치니 향기롭다’고 하는 시어가 실감이 납니다. 보고 듣는 모든 게 공부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청담 스님이 입적하기 직전 마지막 1년을 시봉하던 그때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동광 스님이 출가생활을 돌아본 소감은 어떨까?

“하루 해가 지면 다리 뻘고 통곡하던 고인들의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큰스님 유지를 잇고자 애는 썼지만 작은 힘 밖에 안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건강을 이유로 계음을 파우고 용맹정진 하지 못한 회한(悔愧)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광 스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다고 한다. “스님을 보면 주위가 환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동광 스님은 환희심이 나고 더욱 사람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난다고 한다. 늘 스스로 하심하면서 자비로운 얼굴, 조용한 언행으로 주변을 밝고 행복하게 하는 구도자는 다른 아닌 대승보살이다. 수행을 생활 밖에서, 산속에서만 찾으려 하는 수행자는 ‘평상심시도’라고 한 조사스님들의 법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문선사는 <무문관>에서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를 이렇게 노래했다.

“봄에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달이 있으며, 여름은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눈이 있다. 만일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호시절(好時節)이다.”

클·사진=김성우작가, 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94. 몽골 담마자브 스님

1996년 몽골의 한 교육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나는 놀라지 않아 수없이 들었다. 그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건물 없이 창고 하나를 빌려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내를 맡던 몽골 나른삼보 박사는 말했다.

“몽골은 70년 이상 소련의 지배를 받아 언어는 오히려 문자는 없게 버렸습니다. 고문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체데브 박사과 천문대장 테르비츠 박사, 과학기술대학의 님바도르찌 박사 등 7-8명에 불과합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면 몽골문자까지 없어져 버리게 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는 대학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몽골은 불교탄압으로 승려들은 강제 환속·암살을 당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다. 1990년 이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전통 문화 복원의 작업이 활발히 전개됐다. 사회주의 시절 탄압받았던 전통 종교인 불교와 민중 신앙이 제자리를 찾자 시작했다. 몽골에서는 불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일반 불교대학을 설립하고자 했다. 당시 개신교는 선교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초·중·고교, 대학 등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불교계는 학교 하나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나는 대학 설립에 원력을 세운 트무르츠 현 몽골 문교과학부장관과 나른삼보 사회과학원 교수, 문승스님 다시점트 박사, 체렌람바 대통령 보좌관 등과 뜻을 모았다.

불교대학 설립의 꿈은 2001년 세계불교대회에서 이치란 박사의 소개로 몽골 불교대표이자 세계불교대회 지역센터 회장 담마자브 스님을 만나면서 본격

니었다. 학교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있어야 했다.

체데브 박사는 불교대학 초대 총장으로 학교 체계화에 노력했다. 체데브 박사는 일찍이 중국 공사와 몽골국립대학 도서관장을 지냈다. 체데브 총장은 티베트 불교와 몽골의 전통불교의식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적



몽골 고려사 전경.

달라이 라마 밑에서 수행정진... 몽골 불교 알리기 참병

대학에 참여하며 몽골 불교를 알리고 있다.

나는 2002년 5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갔다. 담마자브 스님이 부지를 제공했다. 처음에는 지금 등의 부족으로 게르(몽골족의 이동식 집) 두 개로 불교대학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한·몽 불교문화원을 운영하고 한국어교습소를 만들어 글을 가르쳤다. 이처럼 박사를 비롯한 여러 한국불자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손현수 대한그림 회장, 범왕궁 문수원 보살, 이룸 모를 불자님이 5000만원 씩을 보시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42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총당 100평)의 건물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울란바토르 남쪽에 자리한 불교대학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생활하던 옛날에 비하면 터전이 잡힌 셈이었다. 학교만 지어진다 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

임자였다. 불교진흥원에서 동국대 석사과정 4명과 박사과정 3명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해 몽골 불교대학에서 학위과정을 수료케 했다. 이 모든 일에는 담마자브 스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여러 도움으로 자리 잡힌 고려사는 몽골고민들을 위한 불교 신앙의 터전이 됐다. 현재 고려사는 지구촌공생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등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불자들의 몽골 포교의 전초기지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지금의 몽골에는 수도 울란바토르에 수많은 절이 복원되고 승려의 수도 1930년대 불교탄압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불교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최근 열린 몽골불교대학 졸업식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이 넘치는 법회를 여는 것을 보고 몽골 불교의 새바람을 확신했다.

신용 신인(신인)가수
■계명: 순국(순국)신도
■소재: 순국(순국)신도
■높이: 4.15m
■중량: 1.5t
■중량: 0.1m
■중량: 2.5kg

대한민국 상감청자 법륜대(운장대)

법륜대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돌리는 동안에

현생과 전생업장이 소멸되는 운장대 기구입니다

법륜대는 권선문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천불 한 분 한 분에 명패를 걸 수 있으며 안으로는 금강경에 이름을 적어 복장까지 시켜줍니다.

[경전 복장 실질적인 기능] 천년 고찰 및 크고 작은 사찰에서 자신과 가족 이름을 법륜대에 봉장하여 영구히 모시는 감동으로 불자님의 소망성취를 위한 기구이자 경전에 있는 실질적인 기능 운장대입니다.

[손 길 따라 돌리지는 법륜대]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밖으로는 이름을 달 수 있고 안으로는 1,080권의 금강경(소경책)을 봉장할 수 있어 사찰 경계가 걱정없는 천불천자지 년년월월 정등(인등)할 수 있는 다목적 법륜대입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0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령리 1156-4 달마사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
 연중4회(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 하시는
 혜택을 드립니다.(카드가능)